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의 매개효과[†]

최 경 희

박 기 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가 매개하는지와 그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406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격 양식 질문지(PSI-II),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ATAQ), 한국판 객관화된 신체의식 척도(K-OBCS), 섭식장애 척도-2(EDI-2),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EAT-26)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지향성, 폭식행동,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는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사회지향성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경로에서 사회지향성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경로에서 사회지향성은 신체수치심,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로에서 사회지향성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지향성이 높을수록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을 증가시키고, 이는 순차적으로 섭식절제를 증가시킴으로써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사회지향성, 폭식행동,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 매개효과

[†] 본 연구는 201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2019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기환, (1466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2-2164-4924, E-mail: psyclinic@catholic.ac.kr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기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마른 이상적 체형을 여성의 미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른 이상적 체형에 대한 기준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확산된다(Thompson & Stice, 2001). 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가자들은 대중매체에서 마른 이상적 신체에 노출되었을 때, 평균이나 과체중의 신체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자신의 체형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oesz, Levine, & Murnen, 2002). 이처럼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되는 이상적인 미에 대한 기준은 많은 여성으로 하여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게 만든다. 또한 자신을 비판적으로 살피게 하여 신체 불만족을 증가시키고, 부정정서, 낮은 자존감, 섭식장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Heinberg, 1996; Rodin, Silberstein, & Striegel-Moore, 1984; Stice, 2001).

그러나 동일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노출되더라도, 섭식장애로 발전하는 데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소들로는 완벽주의, 강박증, 신경증, 부정 정서성, 위협 회피, 낮은 자기지방성, 낮은 연대감, 사회지방성, 자율지방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Cassin & von Ranson, 2005).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성격적 특성 중에서도 사회지방성의 특성을 지닌 개인이 사회문화적인 압력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uemm, Adams, & Keating, 2003). 사회지방성(sociotropy)이란 우울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양식 중 하나로 제시되었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욕구를 가지며 타인의 인정과 애정에 집착하는 성격을

의미한다(Beck, 1983). 사회지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인정과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타인의 거부와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닌다(Friedman & Whisman, 1998). 따라서 이들은 타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사회적 수용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Clark, Beck, & Brown, 1992). 사회지방성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폭식행동과도 관련이 있다는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한다(Frederick & Grow, 1996; Friedman & Whisman, 1998; Krause, Robins, & Lynch, 2000). 폭식행동(binge eating)이란 스스로 섭식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섭식장애의 핵심적인 진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폭식행동을 보이는 여성들은 통제집단보다 수용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Dunn & Ondercin, 1981; Katzman & Wolchik, 1984). 수용과 인정의 주제를 지닌 사회지방성이라는 성격특성은 폭식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임소영, 오수성, 2008; 조성실, 박기환, 2013; Frederick & Grow, 1996; Krause et al., 2000). Friedman과 Whisman(1998)은 폭식증상 및 우울증과 관련된 성격 양식인 사회지방성과 자율지방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지방성과 자율지방성 모두 폭식 증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울의 효과를 통제된 뒤에는 사회지방성만이 폭식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식행동의 원인은 크게 부정적 정서모형과 섭식절제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Stice & Agras, 1999). 먼저 부정적 정서모형에서는 부정

정서를 완화시키거나, 감정을 덜 고통스럽게 전환하기 위하여 폭식행동을 택한다고 설명한다(Heatherton & Baumeister, 1991). 즉, 부정적 정서모형에서는 폭식행동을 고통스러운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았다. 한편, 섭식절제모형에서는 폭식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주로 섭식절제가 선행한다고 주장하며, 섭식절제로 인한 칼로리 섭취 제한의 반작용으로 인해 폭식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Polivy & Herman, 1985). 여기서 섭식절제(dieting)란 먹고 싶은 충동과 싸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적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Polivy & Herman, 1985). 즉,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섭식 절제를 야기할 수 있고, 과도한 섭식 절제에 대한 보상행동으로 결국 폭식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tice (2001)는 이를 통합하여 폭식행동의 이중경로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부정정서와 섭식절제가 모두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사회문화적인 압력과 이로 인한 신체불만족이 섭식절제와 부정정서를 야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지향성이라는 성격특성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도 부정적 정서모형과 섭식절제모형 각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부정적 정서모형을 통해 살펴볼 때,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정서를 더 쉽게 경험하며, 이로 인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식행동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atherton & Baumeister, 1991).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

에서 정서조절 곤란이 조절효과를 나타냈는데, 정서조절곤란의 하위 차원 중에서도 충동통제곤란과 정서적 명료성 부족이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현, 방희정, 2013). 즉, 동일한 사회지향성 수준에서 충동통제에 어려움이 없을수록, 정서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할수록 폭식행동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사회지향성과 섭식장애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Krause et al., 2000). 사회지향성이 높은 여성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주저하고 이를 억압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이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들이 부정정서를 경험하거나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일 때 폭식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한편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섭식절제모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섭식절제모형에서는 마른 체형에 대한 욕구가 섭식절제를 야기하고, 이러한 섭식절제에 대한 보상행동으로 폭식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Polivy & Herman, 1985). 즉,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압력이 섭식절제를 야기하고, 이는 곧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tice & Agras, 1999; Stice, Mazotti, Krebs, & Martin, 1998). 최근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가 날씬한 신체로 획일화되면서,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Becker, Burwell,

Herzog, Hamburg, & Gilman, 2002; Groesz et al., 2002).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압력과 이를 내면화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켜 다이어트 행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폭식행동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Stice, 2001). 특히 사회지향성의 특성을 지닌 개인들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Duemm et al., 2003; Striegel-Moore, Silberstein, & Rodin, 1986). 사회지향성의 성격특성을 지닌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강한 욕구를 지니고, 타인의 애정과 인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Striegel-Moore et al., 1986). Duemm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지향성이 높을수록 사회문화적으로 제시하는 마른 이상적 신체를 많이 내면화하고, 이는 섭식절제와 폭식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들은 타인의 애정과 인정을 얻기 위해 사회문화적인 압력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Duemm et al., 2003). 또한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섭식이나 체형, 체중에 대한 인지왜곡이 더 심했으며, 이는 폭식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소영, 오수성, 2008; 조성실, 박기환, 2013). 그러나 사회지향성이 섭식절제를 매개로 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지향성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섭식절제에 이르게 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섭식절제모형에 근거하여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섭식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모형에서는 여성의 미의 기준으로 '마름(thinness)'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것이 섭식문제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Stice, 2002; Thompson & Stice, 2001; Tiggemann & Pickering, 1996). 이러한 사회문화적 압력 하에서 마른 체형을 이상화시키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형성된 개인의 심리적 태도를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Thin-ideal Internalization)'라고 정의할 수 있다(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여성의 체형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한 기준을 인지적으로 내면화하는 정도를 의미한다(Thompson & Stice, 2001). 이처럼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는 여성들이 신체불만족을 갖게 만들고, 이로 인해 과도하게 체중 조절을 하게 만든다(Striegel-Moore & Cachelin, 2001). 이러한 체중조절 노력은 곧 섭식절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을 시도하고 있는 여학생 중 상당수가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으로 금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상선, 2007). 또한 외모에 대한 신념을 내재화하는 것은 신체 불만족을 증가시킴으로써 폭식 경향성과 섭식억제 경향성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임숙희, 김교헌, 2009). 그러나 Duemm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섭식절제나 신체불만족의 매개를 통해서만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직접적으로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폭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보다는 섭식절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신체 기준은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으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은 실제로는 매우 달성하기 어렵다(Wiseman, Gray, Mosimann, & Ahrens, 1992). 따라서 마른 이상적 신체에 대한 기준을 내면화한 여성은 이 기준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게 되고, 이러한 기준에 자신이 부합하지 않을 때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Mckinley & Hyde, 1996). 신체수치심(body shame)이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에 자신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Fredrickson & Roberts, 1997). 결국 신체수치심은 이상적인 기준과 자신의 신체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체중감소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Mckinley & Hyde, 1996; Rodin et al., 1984). 따라서 신체수치심은 섭식절제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섭식장애 증상의 심각도는 전반적인 수치심보다는 신체수치심이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rney & Irwin, 2000). 신체수치심은 이상섭식행동을 야기하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손은정, 2007; Sanftner, Barlow, Marschall, & Tangney, 1995; Tiggemann & Slater, 2001).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체형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왔다(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Stice & Shaw, 1994). Stice와 Shaw(1994)는 신체 수치심의 주된 원천은 미디어에서 마른 이상적 신체를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또한 김시연 등(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감시행동이 신체수치심을 야기하고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신체수치심이 어떻게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향성이 섭식절제를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지향성의 성격 특성을 지닌 개인이 섭식장애로 발전하는 경로에서 사회문화적 영향이 개입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이에 따른 치료적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를 밝혀왔지만, 이를 섭식절제모형을 근거로 하여 설명한 논문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지향성이 사회문화적 변인을 매개하여 섭식절제에 영향을 미치고, 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향성,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 폭식행동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를 많이 나타낼 것이고, 이상적 신체와 자신의 신체가 부합하지 않을 때, 더 많이 신체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마른 이상적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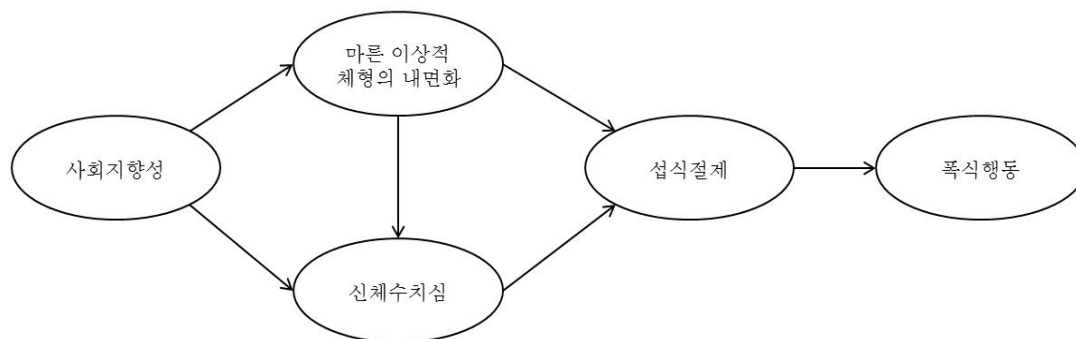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형의 내면화와 신체수치심은 각각 섭식절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섭식절제를 하는 개인은 섭식절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폭식행동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변인들 간 관계를 그림 1에 연구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지향성,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 폭식행동은 모두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둘째, 사회지향성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사회지향성은 신체수치심,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사회지향성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지향성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폭식행동을 일으키는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4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승인번호 : 1040395-201901-08). 섭식장애가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나고, 특히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서 섭식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다는 점(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 연구대상자를 여자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하고 총 406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18세에서 26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20.33세($SD=1.78$)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자신의 키는 149cm에서 178cm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 161.67cm($SD=4.99$)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자신의 몸무게는 38kg에서 93kg까지로 나타났고, 평균

54.53kg($SD=7.40$)이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다. 신체질량지수(BMI)는 체중과 신장의 비율(kg/m^2)로 계산된다. 연구대상자들의 BMI는 15.62에서 33.06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BMI는 20.87($SD=2.62$)로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참가자(88.9%)는 저체중과 정상체중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체중(6.2%)과 비만(0.7%)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거나 드물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71.2%는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28.8%는 현재에도 다이어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성격 양식 질문지(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 PSI-II). 사회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격 양식 질문지(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 PSI-I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Robins 등(1994)이 개발하였고, 이민규(2000)가 번안하였다. 원척도는 ‘사회지향성(24문항)’, ‘자율지향성(24문항)’의 2가지 요인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지향성 24문항만 사용하였다. 사회지향성은 ‘타인 반응에 대한 관심(7문항)’, ‘의존성(7문항)’, ‘기분 맞추기(10문항)’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동의 안함, 6=전적으로 동의)로 되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고(이민규, 2000), 본 연구에서도 .90으로 산출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를 사용하였다. 이는 Heinberg 등(1995)이 개발하였고,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원척도는 ‘내면화(8문항)’, ‘인식(4문항)’의 2가지 요인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를 측정하기 위해 내면화 8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거의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7로 보고되었고(김시연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산출되었다.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Th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K-OBCS). 신체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Th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K-OBCS)를 사용하였다. 이는 McKinley와 Hyde(1996)가 개발하였고,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7)가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원척도는 ‘신체수치심(8문항)’, ‘신체감시성(8문항)’, ‘통제 신념(8문항)’의 3가지 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체수치심의 8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8로 보고되었고(김완석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87로 산출되었다.

섭식장애 척도-2(The 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 섭식장애 척도-2(The 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는 Garner와 Olmsted(1984)가 제작한 척도를 Garner(1990)가 개정하고, 이임순(1998)이 번안하였다. 신경성 거식증과 폭식증 증상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도구로 총 91문항으로 구성되며, 8개의 소척도와 3개의 연구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연구척도를 주로 사용한다. 연구척도는 ‘마르고 싶은 욕구(7문항)’, ‘신체불만족(9문항)’, ‘폭식(7문항)’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폭식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폭식’ 소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섭식절제를 측정하는 척도로 ‘마르고 싶은 욕구’ 소척도를 활용하였다. ‘폭식’ 소척도는 통제하기 어려운 폭식에 대한 생각과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며, ‘마르고 싶은 욕구’ 소척도는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 다이어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6=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에서는 6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채점한다(Garner, 1990). 원척도의 채점방식은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를 0점, ‘자주 그렇다’를 1점, ‘대개 그렇다’를 2점, ‘항상 그렇다’를 3점으로 변환하여 채점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심각한 증상 탐지가 주목적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를 민감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4점 척도로 변환하지 않고, 6점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여 채점하였다. 이상선과 오경자(2004)의 연구에서는 각 척도별 내적 합치도로 마르고 싶은 욕구 .86, 폭식 .73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마르고 싶은 욕구 .91, 폭식 .78로 산출되었다.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은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하였고, Garner, Olmsted, Bohr 와 Garfinkel(1982)이 개정하고, 이민규 등(1998)이 표준화하였다. 본 척도는 섭식장애 정도를 선별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거식(13문항)’,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6문항)’, ‘섭식통제(7문항)’ 3가지 요인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식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소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섭식절제를 측정하는 척도로 ‘거식’ 소척도를 활용하였다.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소척도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과 신경성 폭식증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식’ 소척도는 살이 찌는 음식을 피하거나 날씬해지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4(Garner & Garfinkel, 1979)로 보고되었다. 이상선(2007)의 연구에서는 각 척도별 내적 합치도로 거식 .87,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84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거식 .81,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80으로 산출되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SPSS Amos 22.0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실

시하기에 앞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사회지향성은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각 하위척도를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단일변수로 구성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와 신체수치심은 문항묶음 형성(item parceling)을 통해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섭식절제와 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섭식장애 척도-2(The 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와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을 활용하였다. 섭식절제를 측정하기 위해 섭식장애 척도-2(EDI-2)의 ‘마르고 싶은 욕구’ 소척도와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EAT-26)의 ‘거식’ 소척도를 활용하였으며, 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섭식장애 척도-2(EDI-2)의 ‘폭식’ 소척도와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EAT-26)의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소척도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섭식절제와 폭식행동은 각각 EDI-2와 KEAT-26의 소척도를 하나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인의 측정에 사용한 척도들의 구성개념이 타당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

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하여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서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지향성이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인에 부합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AMOS 22.0을 사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N=406)

	1	2	3	4	M	SD	왜도	첨도
1. 사회지향성					3.65	.70	.12	-.21
2.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333***				2.67	.90	.64	.46
3. 신체수치심	.263***	.620***			2.96	.83	.10	-.56
4. 섭식절제	.266***	.780***	.670***		2.71	.94	.62	-.18
5. 폭식행동	.291***	.518***	.395***	.594***	2.31	.77	.99	1.1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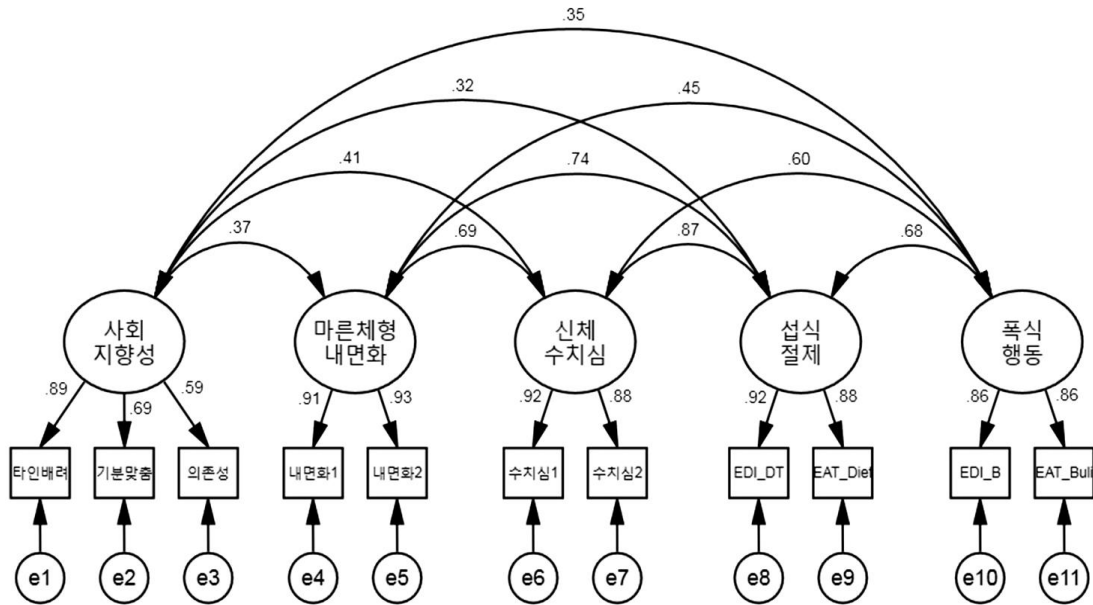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측정변인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101.711(df=34, p<.001)$, CFI=.977, NFI=.966, TLI=.963, RMSEA=.070으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잘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chi^2 = 116.338(df=38, p<.001)$, CFI=.974, NFI=.961, TLI=.962, RMSEA=.071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지향성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beta = .370, p<.001$)와 신체수치심($\beta = .168, p<.001$)에 모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도 신체수치심($\beta = .624,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차적으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beta = .255, p<.001$)와 신체수치심($\beta = .694, p<.001$)은 섭식절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χ^2	df	CFI	NFI	TLI	RMSEA
연구모형	116.338	38	.974	.961	.962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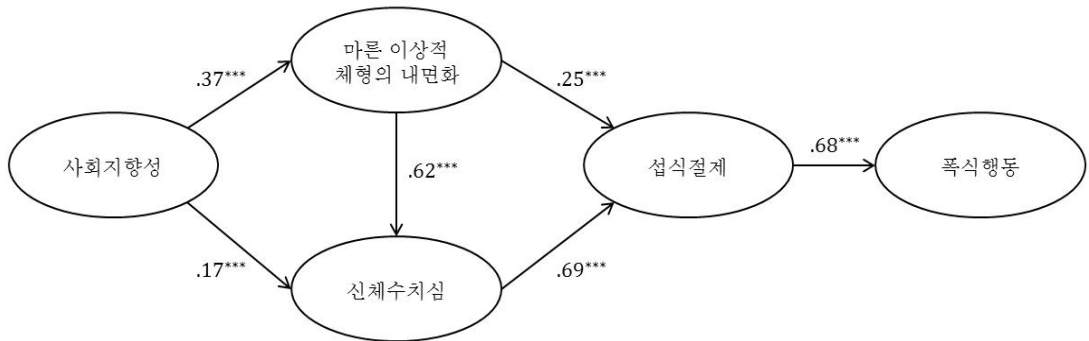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검증(표준화된 회귀계수)

*** $p < .001$.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DV	IV	Estimate	S.E.	Standardized Estimate	C.R.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사회지향성	.572	.094	.370***	6.106
신체수치심	사회지향성	.275	.081	.168***	3.400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659	.054	.624***	12.295
섭식절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223	.043	.255***	5.219
	신체수치심	.576	.045	.694***	12.815
폭식행동	섭식절제	.694	.054	.678***	12.975

*** $p < .001$.

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섭식절제는 폭식행동 ($\beta=.678,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지향성이 높을수록 마른 이상적 신체에 대한 내면화와 신체수치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 이상적 신체에 대한 내면화도 신체수치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 이상적 신체의 내면화와 신체수치심은 곧 섭식절제에 영향을 미치며, 섭식절제는 폭식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는 그림 3과 표 3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Preacher & Hayes, 2008). 본 연구에서는 95%의 신뢰구간에서 5000번의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매개

표 4.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Path	95% Bias Corrected CI	
	Lower	Upper
사회지향성 →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 섭식절제 → 폭식행동	.0818	.2012
사회지향성 → 신체수치심 → 섭식절제 → 폭식행동	.0591	.1647
사회지향성 →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 신체수치심 → 섭식절제 → 폭식행동	.0178	.0559

효과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도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사회지향성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경로에서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세 가지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정적 정서모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섭식절제모형에 근거하여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지향성이 섭식절제를 매개로 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지향성이 섭식절제를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문화적인 변인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

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사회지향성이라는 성격특성을 지닌 개인은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마른 이상적 체형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더 크고, 이러한 신체 기준에 자신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마른 이상적인 신체를 내면화하고 신체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체중 감량을 위해 섭식을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과도한 섭식절제는 보상행동으로 폭식행동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Polivy & Herman, 1985).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지향성과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 폭식행동은 모두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한 결과와도 일치하며, 모든 변인 간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사회지향성은 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지향성이라는 성격특성이 폭식행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Frederick & Grow, 1996; Friedman & Whisman, 1998; Krause et al., 2000). 또한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

타나, 변인 간 관련성이 지지되었다.

둘째,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세 가지 매개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먼저 첫 번째 경로에서는 사회지향성이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와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경로에서는 사회지향성이 신체수치심과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로에서는 사회지향성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와 신체수치심,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매개경로가 모두 지지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마른 이상적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더욱 쉽게 내면화할 수 있으며,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됨으로써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지향성을 지닌 개인이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마른 이상적 신체를 더 쉽게 내면화하며, 섭식절제를 거쳐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Duemm et al., 2003). 또한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더 많은 수치심을 느끼며, 섭식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들은 자신이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신체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더 많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이상적 신체 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Wiseman et al., 1992), 마른 이상적 신체를 내면화한 여성은 스스로 이상적 신체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더 쉽게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서도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신체수치심을 매우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beta=.624, p<.001$), 이는 사회문화적 규준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신체수치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신체수치심이 섭식절제를 예측하는 정도($\beta=.694, p<.001$)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가 섭식절제를 예측하는 정도($\beta=.255, p<.001$)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문화적 규준을 인지적으로 내면화하는 것보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섭식절제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체수치심이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박지연 등, 2011; 손은정, 2007; Sanftner et al., 1995; Tiggemann & Slater, 2001).

본 연구 결과는 사회지향성이 사회문화적 변인들을 매개하여 섭식절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폭식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임상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먼저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섭식절제모형(Polivy & Herman, 1985)에 근거하여 살펴봄으로써 사회지향성이 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주로 부정

적 정서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들이 부정정서를 경험하거나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일 때 폭식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박지현, 방희정, 2013; Heatherton & Baumeister, 1991).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향성을 지닌 개인이 사회적으로 제시하는 이상적인 신체를 보다 쉽게 내면화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섭식절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이 폭식행동을 나타낼 때, 이들의 인지적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지향성의 성격특성을 지닌 개인들이 다양한 변인을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섭식문제를 나타내는 이들의 기저의 핵심 신념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애정에 집착하는 사회지향성의 성격특성이 자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이를 인지행동치료(CBT)와 같은 치료 방법을 활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지행동치료는 많은 연구에서 폭식행동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권호인, 권정혜, 2003; Brownley, Berkman, Sedway, Lohr, & Bulik, 2007). 더욱이 사회지향성의 성격특성을 지닌 개인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라는 인지적 요소를 통해 섭식절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폭식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마른 이상적 신체의 내면화를 감소시키는 것이 폭식행동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를 감소시키는 것이 이상섭식행동의 감

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Stice, Chase, Stormer, & Appel, 2001; Stice, Mazotti, Weibel, & Agras, 2000). Stice 등(2000)은 마른 이상적 체형에 대한 내면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부조화 이론에 근거한 섭식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부조화 이론(dissonance theory)이란 개인의 인지, 태도, 행동 간의 부조화가 유발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지, 태도,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Brehm & Cohen, 1962; Festinger, 195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가자들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에 대항하는 글쓰기, 말하기, 역할연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부조화 개입 집단에서 플라시보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마른 이상적 체형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섭식절제와 폭식행동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ice et al., 2001). 이와 같은 예방적 개입을 통해 섭식장애에 대한 위험요인을 지닌 여성들이 섭식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체수치심은 섭식문제와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변인으로(손은정, 2007; Tiggemann & Slater, 2001), 이러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다양한 섭식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체수치심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는 수용전념치료(ACT)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도 수용전념치료가 부정정서와 폭식행동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아름, 손정락, 2015; 송혜정, 손정락, 2010).

위와 같은 임상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학생만이 아니라 섭식장애를 나타내는 다양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섭식장애 임상 군의 특성 상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남성에서도 폭식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기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적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성들이 보이는 폭식행동에서는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도구만을 활용했다. 따라서 응답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솔직하지 않게 응답했을 경우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응답으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등의 다른 측정 방법을 통해 변인 간 관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인 자료만을 활용하여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였기에 변인 간 인과관계와 시간적 순서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시간적인 순서와 인과 관계를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종단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 본 연구결과가 반복검증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권호인, 권정혜 (2003). 폭식행동을 보이는 여대생의 인지행동 집단치료 효과. *인지행동치료*, 3(1), 27-42.
-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13-634.
- 김아름, 손정락 (2015). 수용 전념 치료(ACT)가 폭식장애 경향이 있는 대학생의 폭식행동, 경험회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2), 407-423.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 (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329-349.
- 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신체에 대한 수치심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63-679.
- 박지현, 방희정 (2013). 여대생의 사회지향성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653-674.
-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35-750.
- 송혜정, 손정락 (2010). 수용-전념 집단 프로그램이 폭식장애 경향이 있는 대학생의 분노, 스트레스 및 폭식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15-27.
- 이민규 (2000). 한국판 PSI-II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305-317.
- 이민규, 이영호, 박세현, 손창호, 정영조, 홍성국 (1998). 한국판 식사태도검사-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s Test-26: KEAT-26) 표준화 연구 1: 신뢰도 및 요인분석. *정신신체의학* 6(2), 155-175.
- 이상선 (2007). 폭식 행동의 이중-경로 모형에 관한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883-902.
-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 이상선, 오경자 (2004). 몸매와 체중에 근거한 자기 평가와 신체 불만족이 여대생의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91-106.
- 이임순 (1998). 섭식 절제가 식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소영, 오수성 (2008). 폭식행동 경향이 있는 미혼 여성의 사회향성과 사회적 불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2), 569-587.
- 임숙희, 김교현 (2009).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여대생들의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853-869.
- 조성실, 박기환 (2013). 사회지향성과 사회문화적 압력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1), 17-3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In P. J. Clayton & J. E. Barret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 265-290). New York: Raven Press.
- Becker, A. E., Burwell, R. A., Herzog, D. B., Hamburg, P., & Gilman, S. E. (2002). Eating behaviours and attitudes following prolonged exposure to television among ethnic Fijian adolescent girl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0(6), 509-514.
- Brehm, J. W., & Cohen, A. R. (1962). *Explorations on cognitive dissonance*. New York: Wiley.
- Brownley, K. A., Berkman, N. D., Sedway, J. A., Lohr, K. N., & Bulik, C. M. (2007). Binge eating disorder treatment: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0(4), 337-348.
- Burney, J., & Irwin, H. J. (2000). Shame and guilt in women with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1), 51-61.
- Cassin, S. E., & von Ranson, K. M. (2005). Personality and eating disorders: A decade in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7), 895-916.
- Clark, D. A., Beck, A. T., & Brown, G. K. (1992). Sociotropy, autonomy, and life event perceptions in dysphoric and nondysphoric individual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6), 635-652.
- Duemm, I., Adams, G. R., & Keating L. (2003). The addition of sociotropy to the dual pathway model of bulimia.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3(4), 281-291.
- Dunn, P., & Ondercin, P. (1981). Personality variables related to compulsive eating in college wom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1), 43-49.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Frederick, C. M., & Grow, V. M. (1996). A mediational model of autonomy, self esteem, and eating disordered attitudes and behavi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217-228.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Friedman, M. A., & Whisman, M. A. (1998). Sociotropy, autonomy, and bulimic symptomat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3(4), 439-442.
- Gamer D. M. (1990). *Eating Disorder Inventory-2: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Gamer, D. M. & Garfinkel, P. E. (1979). The Eating Attitude Test: A index of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9(2),

- 272-279.
- Garner, D. M., Olmsted, M. P., Bohr, Y., & Garfinkel, P. E. (1982). The eating attitude test: Psychometric features and clinical correlates. *Psychological Medicine, 12*(4), 871-878.
- Groesz, L. M., Levine, M. P., & Murnen, S. K. (2002). The effect of experimental presentation of thin media images on body satisfaction: A meta analy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1), 1-16.
- Heatherton, T. F., & Baumeister, R. F. (1991). Binge eating as escape from self-awarenes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86-108.
- Heinberg, L. J. (1996). Theories of body image disturbance: Per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J. K. Thompson (Ed.), *Body image,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An integrative guide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pp. 27-4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Katzman, M. A., & Wolchik, S. A. (1984). Bulimia and binge eating in college women: A comparison of personality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3), 423-428.
- Krause, E. D., Robins C. J., & Lynch, T. R.(2000). A mediational model relating sociotrop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4), 328-335.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 Polivy, J., & Herman, C. P. (1985). Dieting and binging: A causal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0*(2), 193-20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obins, C. J., Ladd, J., Welkowitz, J., Blaney, P. H., Diaz, R., & Kutcher, G. (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s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4), 277-300.
- Rodin, J., Silberstein, L., & Striegel-Moore, R. (1984). Women and weight: A normative discontent.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32*, 267-307.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anftner, J. L., Barlow, D. H., Marschall, D. E., & Tangney, J. P. (1995).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4), 315-324.
- Stice, E. (2001). A prospective test of the dual-pathway model of bulimic pathology: Mediating effects of dieting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1), 124-135.
- Stice, E. (2002). Risk and maintenance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5), 825-848.
- Stice, E., & Agras, W. S. (1999). Subtyping bulimic

- women along dietary restraint and negative affect dimen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4), 460-469.
- Stice, E., Chase, A., Stormer, S., & Appel, A. (2001). A randomized trial of a dissonance based eating disorder prevention program.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3), 247-262.
- Stice, E., Mazotti, L., Krebs, M., & Martin, S. (1998). Predictors of adolescent dieting behaviors: A longitudinal stud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2(3), 195-205.
- Stice, E., Mazotti, L., Weibel, D., & Agras, W. S. (2000). Dissonance prevention program decreases thin ideal internalization, body dissatisfaction, dieting, negative affect, and bulimic symptoms: A preliminary experi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7(2), 206-217.
- Stice, E., & Shaw, H. E. (1994). Adverse effects of the media portrayed thin-ideal on women and linkages to bulimic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3), 288-308.
- Striegel-Moore, R. H., & Cachelin, F. M. (2001). Etiology of eating disorders i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5), 635-661.
- Striegel-Moore, R. H., Silberstein, L. R., & Rodin, J. (1986). Toward an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for bulimia. *American Psychologist*, 41(3), 246-263.
- Thompson, J. K., & Stice, E. (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81-183.
- Tiggemann, M., & Pickering, A. S. (1996). Role of television in adolescent women's body dissatisfaction and drive for thin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0(2), 199-203.
- Tiggemann, M., & Slater, A. (2001).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in former dancers and non-danc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5(1), 57-64.
- Wiseman, C. V., Gray, J. J., Mosimann, J. E., & Ahrens, A. H. (1992). Cultural expectations of thinness in women: An updat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1(1), 85-89.

원고접수일: 2019년 7월 31일

논문심사일: 2019년 8월 26일

게재결정일: 2019년 9월 28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9, Vol. 24, No. 4, 927 - 94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Binge Ea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Thin-ideal Internalization, Body Shame, and Dieting

Kyung-Hee Choi

Kee-Hwan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binge eating, mediated by the thin-ideal internalization, body shame, and dieting among young female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406 fe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instructed to complete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 (PSI-II),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 Th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K-OBCS), The 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 and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sociotropy, binge eating, thin-ideal internalization, body shame, and dieting. The resul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indicated that sociotropy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binge eating through three different pathways. In the first pathway, sociotropy influenced binge eating by mediating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dieting sequentially. In the second pathway, sociotropy influenced binge eating by mediating body shame and dieting sequentially. In the third pathway, sociotropy influenced binge eating by mediating thin-ideal internalization, body shame, and dieting sequentiall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sociotropy, binge eating, thin-ideal internalization, body shame, dieting, mediating effect